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사십이호

Jeff Pippenger

2026-02-09

숫자 사십이

봄 절기들이 그 반형과 만났던 그리스도의 선과 연계하여 레위기 23장을 각각 22절로 된 두 개의 동등한 선으로 분할할 때, 우리는 금요일 저녁의 유월절과 안식일의 무교절, 그리고 주간 첫째 날의 초실절이라는 세 단계로 시작하는 하나의 선을 입증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침례로 표상되는 하나의 이정표이지만, 그 하나의 이정표에는 세 단계가 있다.

부활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사십 일을 내다보면 우리는 전환점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대면하여 가르치시던 것을 그치시고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십사만 사천도 구름 가운데로 올라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는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사람 칠천 명이 죽었으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이다." 요한계시록 11:12-15.

둘째와 셋째 화는 이슬람이며, 일곱째 천사는 셋째 화인데, 이는 다시금 이슬람이다. 셋째 화는 지진 시에 속히 이른다. 그 지진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이며, 미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일요일 법령은 흔들림, 곧 진동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열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이며, 일요일 법령 때 미국이 전복될 때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리라. 일요일 법령의 바로 그 시에,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는 두 증인,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 두 증인이, 구름 가운데로 하늘에 올려지고, 모든 사람이 본다. 이는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부활 후 사십 일이 지나 예수께서는 "승천"하여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고, 다락방에서의 열흘이 시작되었다. 승천은 가시적 시험이며, 이는 세 천사 중 둘째도 그러하다. 그의 승천 때 천사들은, 그가 방금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들을 하신 후,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가 올려지시니, 구름이 그를 받아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가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9-11.

그의 재림은 그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임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38.

이 동일한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모산에서 목도하였다. 변모산 또한 둘째 단계였으며, 그 앞에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뒤에는 가이사랴 마리티마가 있었다. 둘째 시험은 또한 짐승의 우상 시험으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고 있음을 예언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험이다. 둘째 시험은 또한 멜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안색을, 채식을 하지 않은 자들의 안색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시각적 시험이다. 아브람의 언약사에서의 세 언약 단계 가운데 둘째 단계는 할례의 '표징'이었다. 둘째 단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호로 높이 들려질 때 받는 인침을 대표한다. 둘째 단계는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니, 첫째 천사의 세 단계가 두려움, '영광', 심판이기 때문이다. 오순절 절기의 마흔째 날은 변모산과 상응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승천은 시각적 시험이며, 절기의 선상에서 사십 일 시점의 승천에는 나팔절을 포함한 닷새가 선행한다. 나팔절은 일곱째 나팔의 경고, 곧 이슬람의 경고를 가리킨다.

승천은 나팔절을 따른 지 5일 후에 뒤따르며, 승천으로부터 다시 5일 후에는 대속죄일이 심판을 표징한다. 나팔은 옛길이며, 라오디게아 기별이며, 이슬람이며, 또한 첫째 천사의 기별의 토대가 되는 기별이다. 그로부터 5일 후, '대면' 가르침이 끝날 때, 승천이 둘째 천사의 가시적인 두 번째 시험을 표징한다. 그로부터 다시 5일 후에는 심판이 셋째 천사를 표징한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끝난 지 닷새 후, 오순절의 날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미국에 심판이 임한다.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 알지니라: 네 자손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학대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창세기 15:13, 14.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는 일요일 법령의 때에 십사만 사천이 소유한 '큰 실체'는 곧 신성을 표상하는 이사야서 6장의 실체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예언은 '또한 그 나라'라고 말하며, 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 다음 일요일 법령의 때, 곧 초막절의 이레로 표상되는 기간에,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큰 무리에 대한 심판이 성취됨과 더불어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진다.

2020년 7월 18일, 두 증인은 소돔과 애굽의 거리에서 살해되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였고, 윌리엄 밀러는 그의 역사 속에서의 엘리야였다. 그의 꿈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고, 2020년 7월 18일에 그는 예언적으로 죽음 가운데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방은 비어 있었고, 문과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 후 밀러가 먼지를 쓸어내는 사람이

이루고 있던 일을 보았을 때, 그는 그에게 조심해 달라고 간청하였고, 그 먼지를 쓸어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에게 확인하였다.

밀러가 2023년 7월에 광야에서 깨어났을 때, 무교절이 도래하였고, 이는 2023년 12월 31일의 부활에 바로 앞선 일이었다. 그때—이전에 봉인이 풀렸던 다른 모든 예언적 메시지가 예표하였던 그 '외침', 곧 참된 '한밤중의 외침'의 예언적 메시지—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삼일 반의 끝이 '끝의 때'를 지시하며, '끝의 때'에는 언제나 예언의 봉인이 풀리기 때문이다. 이는 항상 그러하니,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도 늘 동일한데, 그분은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선들'을 따라 일하신다. 삼일 반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이 풀렸다.

부활한 몸은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음 받은 아담으로 예표되었다. 에스겔 37장의 죽은 마른 뼈들도 하나의 예언으로 먼저 모양이 갖추어지고, 그다음 둘째 예언으로, 사방의 바람의 기별, 곧 인침의 기별에 의해 생명의 호흡이 생명 없는 몸에 임함으로써 살아나게 되었다. 두 가지 예증 모두에서 봉인이 풀린 그 예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곧 내적과 외적, 율래 강과 히데겔 강의 환상, 하존과 마레 환상, 두 증인, 두 금관 등등이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한밤중의 외침은 둘째 천사의 예언과 연합한 예언이었다. 두 단계의 예언이었다. 메마른 죽은 뼈들이 2023년에 부활했을 때, 예언의 필연성상 그들은 시험을 받아야 했으니, 예언의 봉인이 풀릴 때마다 항상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처음 두 가지 시험은 기초의 시험, 그리고 성전의 시험이었다.

부활 후 다섯째 날에—무교절의 기간으로 표상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끝난다. 이는 엘리야가 밀러와 세레 요한으로 표상되었고,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이 감히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고 한 그분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부활하실 때 예수께서는 사십 일 동안의 '대면' 가르침의 기간을 시작하신다. 그 '대면' 가르침은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에게 이십이째 날에 시작되었다. 거기에서는 그것이 세 단계와 세 번의 만지심으로, 또한 강건하게 됨의 배가와 함께 표상된다.

사십 일이 마치기 닷새 전, 이슬람의 경고 나팔이 울린다. 이슬람의 경고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로 상징되었다. 그분께서 감람산의 비탈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그 나귀를 풀라고 명하셨다.

이 견해는 1847년에 주어졌는데, 그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형제들이 극히 적었고, 그들 중에서도 그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 사이에 경계를 그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이제 그 견해의 성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앙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 곧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을 가리킨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감되어 가는 동안, 땅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국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소리에 능력을 더해 주고,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예비할 것이다. Early Writings, 85.

9/11에 그분은 자신의 천사들에게 나귀를 풀어 놓으라고 명하셨고, 이어서 조지 부시 소(小)가 그 나귀를 제지하였다. 고레스는 첫째 천사를 예표하는데, 이는 그가 첫째 칙령을 반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1840년 8월 11일과 9/11 모두를 대표하며, 9/11에 '열방의 격노'로 표상된 이슬람이 풀려났다가 이어 제지되었다. 그때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고레스는 1840년 8월 11일과 9/11에 관한 이슬람의 두 이정표를 모두 대표한다.

세 주일 동안 가브리엘은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며,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상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투쟁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브리엘을 도우러 오셨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스물한 날 동안 나를 대적하였으나, 보라, 우두머리 군주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거기서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다니엘 10:13.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마침내 승리가 거두어졌고, 적의 세력은 고레스의 모든 날 동안과,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날 동안 제지되었다. 선지자와 왕들, 571.

고레스의 역사에서와, 선구자들의 표현대로 오스만의 패권이 종결된 1840년 8월 11일에, 둘째 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은 억제되었다. 그 억제는 391년 15일의 기간 예언의 종결을 표시하였는데, 그 예언은 이슬람의 네 술탄을 대표하는 네 천사가, 이슬람의 세 화 중 둘째 화를 대표하는 여섯째 천사에 의해 풀려났을 때 시작되었다. 9/11에 이슬람은 일격을 가한 뒤 억제되었는데, 이는 고레스의 역사와 1840년의 역사 속에서의 억제로 표상된 바와 같다. 그 세 증인은 모두 이슬람의 억제 혹은 풀림을 증언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의 시작에 나귀가 풀렸다.

그의 승리의 입성에 앞서 나귀가 풀리는 일은 승천 5일 전에 임하는 나팔의 기별을 지목한다. 9/11 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인 일요일 법령에서 15일 후에 다시 그러하게 될 것처럼, 이슬람이 다시 풀려난다는 그 기별은 한밤중 소리의 시작을 표지하는 기별이다. 나귀가 풀려남은 한밤중 소리의 기별 선포의 시작, 곧 알파를 표지하며, 한밤중 소리가 큰 소리 외침으로 변하는 일요일 법령에서 이슬람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다시 타격한다.

한밤중의 외침의 기간은 이슬람의 알파 타격으로 시작하여 이슬람의 오메가 타격으로 끝난다. 이슬람의 미국에 대한 타격들은 발람과 그의 나귀의 증언 속에 표상되어 있으며, 이는 물론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개신교 뿔로서의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운명은 이사야 22:22(내적)에 표상되어 있고, 공화당의 뿔의 운명은 민수기 22:22(외적) 이하에 제시되어 있다.

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대적자가 되어 길에 서 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뽑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매, 발람이 나귀를 때려 길로 돌이키려 하니라. 민수기 22:22, 23.

9.11 때, 미합중국과 조지 부시 주니어를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은, 세계화 세력이 미합중국을 전복하고 그의 아버지 조지 부시 시니어가 '신세계질서'라고 부른 바를 시행하려는 시도 속에서, 아버지가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다. 세계화

세력의 성경적 동기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죽이는 데 있으며, 조지 부시 주니어는 그의 아버지가 '신세계질서'라고 불렀던 것을 도입하는 예언적 유산의 종결을 대표한다. 부시의 '신세계질서'는 일요일 법령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연합에 이르며, 조지 부시 주니어는 일요일 법령에서 절정을 이루는 기간의 시작을 표지한다. 그 기간은 인침의 때요, 짐승의 표상 시험의 때요,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으로 표상된 기간 등이며, 그 밖에도 매우 많은 것들이 있다. 발람의 나귀는 십사만 사천이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세계화 세력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아삽의 노래 또는 시.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옵소서; 침묵하지 마시며, 고요히 계시지 마옵소서, 하나님이며.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계를 꾸미며, 주의 감추신 자들을 대적하여 서로 모의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한 민족 되지 못하게 끊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은 한뜻으로 함께 의논하였으며,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였나이다. 시편 83:1-5.

6절 이하에서는 '원수들'을 '열' 나라로 식별하며, 이들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열 왕으로 표상된다. 거기서 그 열 왕들은 한 뜻을 품었으나, 아삽은 말한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의논하였으며, 주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었나이다." 그 열 왕들은 마지막 때의 전 세계적 사악한 연합체로서, '이스라엘' 곧 '주의 숨은 자들'을 '한 민족이 되는 것'에서 '끊어 버리다'고 걱정하였다. 삼중 연합의 '머리'로 교황권을 '들어 올리는' 열 왕의 연맹의 일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영적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이다.

9:11 때 이슬람의 나귀가 용의 계획을 그 진로에서 빗나가게 하였으니,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능한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강림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의 내부적 시험은 옛 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시점에, 요한계시록 18장 첫 세 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에 관한 밀러파의 역사가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그 처음 세 절은, 엘렌 G. 화잇 자매가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뜨려질 때 성취될 것이라고 언명한 바로 그 구절들이다.

9/11에 요한계시록 18:1-3이 성취되었고, 1840년 8월 11일 그의 영광으로 땅을 비추기 위해 강림한 첫째 천사에 상응하는 사건에는 그때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한 둘째 천사가 더해졌다. 발람은 첫째 천사의 표상이었고, 발람과 함께한 그의 두 종은 둘째 천사를 표상하였다.

거짓 선지자의 공화당 뿔에 대한 발람의 도식에서, 발람은 이슬람의 나귀와 두 차례 더 대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대면에서 그 나귀는 '말할' 것이며, 예언에서의 '말함'은 일요일 법령을 표지한다. 2023년 10월 7일 그 나귀가 다시 타격을 가했으나, 그것은 현대의 영적 영화로운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적 고대의 영화로운 땅을 타격을 가하였고, 발람과 그의 나귀는 이제 두 번째 대면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들 사이의 길에 서 있었는데, 이쪽에도 담이 있고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암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 담으로 몸을 들이밀어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 짓눌렀으므로, 발람은 다시 암나귀를 때렸다. 민수기 22:24, 25.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포도원을 예시한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수탁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언약 백성이며, 그

율법은 '담'으로 상징되고 포도원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오라,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행할 바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리니 그것이 먹힘을 당할 것이요, 그 담을 헐어 버리리니 그것이 짓밟힘을 당하리라. 이사야 5:4, 5.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과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은 모두 반역하여 그들의 거룩한 책무를 거부하였다.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예언적 쟁점이 '벽'으로 상징된다. 그 예언적 쟁점은 미합중국 헌법 안에 있는 정교분리의 '벽'의 파괴이다. 9/11 당시 부시는 애국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헌법을 전복하는 데 있어 중대한 걸음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본다는 로마법의 원칙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본다는 영국법의 원칙보다 우선하여 채택됨으로써, 헌법을 이끌어 온 철학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9/11부터 일요일 법령까지의 기간은 '벽'에 대한 예언적 언급을 포함한다. 발람의 나귀처럼 벽을 들이받는 이슬람은, 헌법의 원칙들을 전복하기 위한 그릇된 논리를 제공할 사안이 바로 이슬람임을 지목한다. 이러한 예언적 의미에서, 성경적 거짓 선지자인 이슬람은 짐승의 형상 시험의 때 동안 미국을 미혹하며, 마찬가지로 미국의 거짓 선지자도 세계의 짐승의 형상 시험의 때 동안 온 세상을 미혹한다.

2023년 10월 7일 이슬람의 나귀가 고대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한밤중의 외침이 선포되기 전에 나귀가 풀려나면, 이슬람은 9/11 때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영적 영화로운 땅인 미국을 다시 타격할 것이다. 발람이 그 나귀를 두 번째로 때릴 때 그것은 둘째 천사이며, 둘째 천사는 두 개의 담이 있는 '포도원들의 길'로 표상되듯 언제나 배가를 일으킨다.

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자 발람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의 노가 타올라 그가 지팡이로 그 나귀를 때렸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이 나를 이 세 번이나 때리나이까?

22절과 23절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 나귀가 처음으로 맞는 대목은 사실 23절임을 알게 된다.

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대적자가 되어 길에 서 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뽑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매, 발람이 나귀를 때려 길로 돌이키려 하니라. 민수기 22:22, 23.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라는 요청을 수락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절에서 변론을 일삼던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사건과 평행을 이룬다. 민수기 22장 23절은 마태복음 23장과 상응하며, 민수기 22장 24절과 25절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상응한다. 민수기 22장 26절, 27절, 28절은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과 상응한다.

마태복음 23장은 첫째 천사, 24장과 25장은 둘째 천사, 26장·27장·28장은 셋째 천사이다. 민수기 22장에서는 23절이 첫째 천사, 24절과 25절이 둘째 천사, 26절·27절·28절이 셋째 천사이다. 마태복음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을 대상으로 하며, 민수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온 세계로 퍼지는 주일 예배에 대하여 이슬람의 역할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규정한다. 세 번째 매질 후 나귀가 말하자, 발람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그는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 세 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느니라. 나귀가 나를 보고 이 세 번 내 앞에서 돌이켰느니라. 그가 내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제 분명히 너를 죽이고 그 나귀는 살려 두었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대적하여 길에 서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든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민수기 22:31-34.

발람은 거짓 선지자, 곧 일요일법령의 때에 용 같이 말하는 미합중국을 표상한다. 일요일법령의 때에 그가 조명을 받을 때, 그는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상하며, 그들은 그때 일요일법령의 쟁점에 대하여 각성되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밀러의 무교병 기별을 가르치는 5일간, 이어서 삼십으로 표상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사장들을 가르치시는 30일간이 있고, 이것이 나귀의 매임을 푸는 일에 대한 나팔 경고 기별로 이어지며, 그 기별은 기호를 들려 올리는 일을 5일 선행하고, 그 일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닫힌 문을 5일 선행하며, 그 닫힌 문은 오순절적 일요일 법령을 5일 선행한다. 이 일요일 법령이 초막절의 7일 기간을 개시하는데, 이는 일요일 법령 위기 동안 늦은비가 충분히 부어지는 때이니, 그 기간의 시험이 제칠일을 둘러싼 것이기 때문이다.

숫자 다섯은 지혜로운 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처녀들을 상징한다. 숫자 서른은 제사장들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바이다. 숫자 일곱은 곧 안식일이다. 레위기 23장은 안식일 시험의 때에 제사장들, 말라기 3장의 레위인들, 지혜로운 처녀들, 그리고 십사만 사천의 역사를 보여 준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